

# 아파트거주 부녀자들의 모성 보건에 관한 지식 및 실천상황에 관한 실태조사(上)

— 전남 광주지역의 15~49세 부녀자들 중심으로 —

권 순 단

(수피아 간호전문학교)

지도 : 조 원 정 조교수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3) 연구의 제한점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의 선정
- (2) 조사기간
- (3) 조사방법
- (4) 조사자료의 처리

## III. 결과 및 고찰

## IV. 결론 및 제언

- ※ 참고문헌
- ※ 영문초록

개인의 건강은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여건으로부터의 경향도 있겠지만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건강한 습관과 지식 및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어느 개인의 건강유지 여부가 좌우된다고도 하겠다. 특히 “한 가정에서 모자의 건강은 가족복지의 근원이 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은 전전한 국가와 사회의 토대자 되는만큼 국가보건의 관건은 모자보건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라고 할 만큼 모성보건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한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부녀자 즉, 주부의 건강은 그녀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행복과 안녕의 초석이 되는 동시에 가족의 건강대지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한편 모성의 건강관리는 현대 복지국가의 정부시책으로 많은 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해 지식의 수준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적 특수사정과 보건지식의 결여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모성보건관리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 제도의 변화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어느 누구를 타락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는 건강일 것이다. 어느 한

1) 강진원 외 ; 가족제위과 모성보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73. p.51

에 따라 주택난이 문제로 되고 있으나 주택수요의 증대에 따른 주택 건립수는 이에 따르지 못하여 적은 땅에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고 주택건축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파트 건축분야 한창이다. 특히 광주시는 대도시로서 점차 팽배해 가는 과정에서 도시주택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파트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부녀자들의 실태파악은 도시인들의 모성관리 실태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연구자는 광주지역 아파트 주민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모성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경도와 실천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임여성들의 모성건강관리에 따른 특수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해결책을 연구하여 실제적으로 모성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얻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남 광주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임여성들의 모성보건에 대한 지식과 실천상황에 관한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또한 모성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사대상자의 사회학적,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다.

②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에 따른 임신기간중의 섭생과 분만간호 및 산육기간호에 대한 지식과 실천상태를 파악한다.

③ 교육수준별에 따른 임신기간중의 섭생과 분만간호 및 산육기 간호에 대한 지식과 실천상태를 파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① 본 연구의 범위는 모성보건의 전반적인 영역의 연구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지식 및 실천에 한하여 연구된 결과이다.

② 본 연구는 광주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배우 가임여성 9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광주시내 아파트 전 지역에 살고있는 여성들의 모성보건의 지식 및 실천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점이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의 선정

광주시내 아파트(광천동 시민아파트 180세대, 산수동 공무원아파트 120세대, 학동 시민아파트 48세대)에 거주하는 15~49세의 유배우 가임여성중에서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하여 대상자 99명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교육정도, 대상자 남편의 교육정도, 그리고 대상자 남편의 직업은 다음과 같다. (표 1, 2, 3, 4참조)

〈표 1〉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별	No	%
15~19	1	1.0
20~24	4	4.0
25~29	31	31.3
30~34	31	31.3
35~39	12	12.2
40~44	18	18.2
45~49	2	2.0
계	99	100.0

### 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34세군이 62.6%, 35~44세군이 30.2%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교육정도

교육정도	No	%
무학	16	16.1
국졸	20	20.2
중졸	17	17.2
고졸	31	31.3
대졸	15	15.2
계	99	100.0

2)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별 분포

〈표 2〉에서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국졸 20.2%, 중·고졸이 48.4%로 가장 많고 대졸은 1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표를 보면 무학에서 대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 3〉 남편의 교육정도

교육 정도	No	%
무 학	8	8.1
국 졸	8	8.1
중 졸	14	14.2
고 졸	24	24.2
대 졸	45	45.4
계	99	100.0

3) 조사대상자 남편의 교육정도별 분포

〈표 3〉에서 남편의 교육정도를 보면 무학과 국졸이 각각 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대졸에서 45.4%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4) 조사대상자 남편의 직업

〈표 4〉에 의하면 사무직이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문직 및 기술직으로 27.2%였으며 무직이 8.1%나 되었다.

〈표 4〉 대상자 남편의 직업정도

직업	No	%
사무직	35	35.3
전문직·기술직	27	27.2
판매직	12	12.1
서비스직	21	2.0
기능생산직	5	5.1
단순노동	7	7.1
무직	8	8.1
분류불능	3	3.1
계	99	100.0

(2)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은 1976년 12월 15일부터 1977년 1월 15일까지였으며, 1976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조사대상자의 약 30%인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방법

위의 조사 기간중에 광주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9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미리 작성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접이 가능치 않았을 때는 2회이상 가정방문을 하였다.

(4) 조사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치, 표준편차, 그리고 필요에 따라 F test, Chi-square를 시행하여 유의성 검정을 했다.

Ⅲ. 조사결과 및 고찰

1. 임신 회수

〈표 5-1〉에서 평균 임신 회수는 4.2회로서 이는 신<sup>2)</sup>의 3.1회보다 높았으며, 4회의 임신 회수가 22.2%로서 가장 많았는데, 평균 연령은 31.54±8.9세이었고 8회의 임신을 한 경우는 평균 연령이 42.0±4.3세로 가장 높았다.

〈표 5-2〉에서 대상자의 교육별 임신 회수를 보면 무학군이 5.6회, 국졸 4.6회, 중졸 6회, 고졸 3.4회, 그리고 대졸이 2.2회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임신 회수를 통계학적으로 보면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

2. 연령별 현존 자녀수

현존 자녀수 분포를 보면 자녀수 3명이 30.5%

2) 신덕화, 일부 기혼 직업여성과 도시농촌 가정주부간의 인공유산상태에 관한 고찰, 대한간호학회지 제 2호, 1973. pp. 56~57

<표 5-1>

연령별 임신 회수

임신 회수 No(%)	1	2	3	4	5	6	7	8	9	계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연령별										
15~19	1(100.0)	—	—	—	—	—	—	—	—	1(100.0)
20~24	3 (75.0)	—	—	—	1(25.0)	—	—	—	—	4 (〃)
25~29	3 (9.7)	7(22.5)	8(26.0)	10(32.2)	1 (3.2)	1 (3.2)	1(3.2)	—	—	31 (〃)
30~34	2 (6.4)	3 (9.7)	8(26.0)	7(22.5)	4(12.9)	5(16.1)	1(3.2)	—	1 (3.2)	31 (〃)
35~39	1 (8.3)	—	2(16.7)	2(16.7)	4(33.3)	—	1(8.3)	2(16.7)	—	12 (〃)
40~44	—	—	3(16.6)	3(16.6)	2(11.1)	2(11.1)	1(5.6)	2(11.1)	5 (27.9)	18 (〃)
44~49	—	—	—	—	—	—	—	—	2(100.0)	2 (〃)
계	10(10.0)	10(10.0)	21(21.3)	22(22.2)	12(12.1)	8 (8.1)	4(4.1)	4 (4.1)	8(8.1)	99(100.0)
Mean ±S.D	26.4 ±3.4	25.0 ±3.2	32.09 ±8.7	31.54 ±8.9	34.08 ±5.4	3.87 ±3.5	34.5 ±5.6	42.0 ±4.3	32.6 ±8.6	

<표 5-2>

교육별 임신 회수

임신 회수 No(%)	1	2	3	4	5	6	7	8	9	계	Mean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교육별											
무 학	—	1 (6.3)	1 (6.3)	5(31.1)	1 (6.3)	2(12.5)	2(12.5)	2(12.5)	2(12.5)	10(100.0)	5.6
국 중	3(15.1)	—	2(10.0)	5(25.0)	4(20.0)	3(15.0)	—	1 (5.0)	2(10.0)	20(100.0)	4.6
중 중	—	—	2(11.8)	2(11.8)	5(29.4)	1 (5.9)	2(11.8)	1 (5.8)	4(23.5)	17(100.0)	6.0
고 중	4(12.9)	2 (6.4)	12(38.9)	9(29.0)	2 (6.4)	2 (6.4)	—	—	—	31(100.0)	3.4
대 중	3(20.0)	7(46.7)	4(26.0)	1 (6.7)	—	—	—	—	—	15(100.0)	2.2
계	10(10.0)	10(10.0)	2(21.3)	22(22.2)	12(12.1)	8 (8.1)	4 (4.1)	4 (4.1)	8 (8.1)	99(100.0)	

로 수위이며 이는 신<sup>3)</sup>의 33.0%보다 낮았다. 한편 5명의 자녀를 가진 자가 평균연령 41.17±6.2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평균 혈존 자녀수

는 2.8명이었다.

<표 6-2>에서 대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현

존자녀수 분포는 무학이 3.5명으로 가장 높았고

<표 6-1>

연령별 혈존 자녀수

자녀수 No(%)	1	2	3	4	5	6	7	계
	No(%)	No(%)	No(%)	No(%)	No(%)	No(%)	No(%)	No(%)
연령별								
15~19	1(100.0)	—	—	—	—	—	—	1 (1.1)
20~24	2 (66.0)	1(33.3)	—	—	—	—	—	3 (3.1)
25~29	5 (16.1)	15(48.3)	7(26.6)	1 (3.6)	—	—	—	28(29.5)
30~34	9 (28.9)	2 (5.4)	13(42.2)	6(19.3)	—	—	1 (3.3)	31(32.6)
35~39	1 (8.3)	2(16.6)	3(25.1)	3(25.1)	2(16.6)	1 (8.3)	—	12(12.6)
40~44	1 (5.6)	—	6(33.2)	5(27.8)	3(16.7)	2(11.1)	1 (5.6)	18(19.0)
45~49	—	—	—	—	1(50.0)	1(50.0)	—	2 (2.1)
계	19 (20.0)	20(21.0)	29(30.5)	15(15.8)	6 (6.4)	4 (4.2)	2 (2.1)	95(100.0)
Mean±S.D	29.63±7.2	30.25±7.8	30.03±6.9	36.0±6.9	41.17±6.2	36.25±5.9	37.0±9.6	

3) 상지서 p.59

<표 6-2>

교육별 현존 자녀수

교육별	자녀수 No(%)	자녀수							Mean	
		1	2	3	4	5	6	7		계
		No(%)	No(%)	No(%)	No(%)	No(%)	No(%)	No(%)	No(%)	
부	학	4(24.9)	2(12.5)	1(6.3)	4(24.9)	1(6.3)	3(18.8)	1(6.3)	16(100.0)	3.5
중	졸	2(10.0)	3(15.0)	7(35.0)	5(25.0)	2(10.0)	1(5.0)	—	20(100.0)	3.2
고	졸	5(29.4)	1(5.9)	5(29.4)	—	3(17.7)	—	1(5.9)	15(100.0)	2.9
대	졸	3(9.7)	9(29.0)	11(39.0)	6(19.3)	—	—	—	29(100.0)	2.6
대	졸	5(33.3)	5(33.3)	5(33.4)	—	—	—	—	15(100.0)	2
계		19(20.0)	20(21.0)	29(30.5)	15(15.8)	6(6.4)	4(4.2)	2(2.1)	95(100.0)	

다음이 국졸로서 3.2명, 중졸 2.9명, 고졸 2.6명, 그리고 대졸이 2명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음을 보여 주었으며 교육정도에 따른 현존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 3. 임신 중의 진찰 회수

산전진찰 회수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임신 3개월경의 진찰회수를 옳게(월 1회) 대답한 사람은 전체 99명중의 38명 즉 38.4%였고 7개월경의 진찰회수를 옳게(월 3회) 대답한 수는 18명으로 18.1%였으며 임신말기의 진찰회수에 대한 옳은(월 4회) 답을 한 수는 4명 즉 4.0%에 불과하였다.

0~5세까지에 있는 막내아이에 대한 실천에 있어선 3개월에 24.2%, 7개월 때는 18.1%, 말기 때는 3.0%의 낮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었다. 모성 사망의 원인인 임신중독증을 발견하고 유산과 조산의 예방, 분만준비, 임신중의 섭생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산전진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정도와 진찰회수를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산전진찰 회수에 대한 옳은 답을 한 수가 많았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는 교육수준과 비례하지는 않았지만 임신 3개월때의 산전진찰 회수는 고졸이 56.6%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 46.6%, 중졸 5.9%이었으며 임신말기때의 산전진찰 때의 실천은 대졸 67.7%, 고졸 6.4%, 중졸이 5%의 순위였다.

<표 8-1> 연령별 분만예정일 계산법

연령별	문제 No(%)	알고있다	모른다	계
		No(%)	No(%)	No(%)
15~19	1(100.0)	—	—	1(100.0)
20~24	2(50.0)	2(50.0)	—	4(100.0)
25~29	23(74.2)	8(25.8)	—	31(100.0)
30~34	23(74.2)	8(25.8)	—	31(100.0)
35~39	8(66.7)	4(33.3)	—	12(100.0)
40~44	8(44.4)	10(55.6)	—	18(100.0)
45~49	—	2(100.0)	—	2(100.0)
계	65(65.6)	34(34.4)	—	99(100.0)
Mean±S.D.	31.54±8.5	34.64±8.4	—	32.60±8.45

### 4. 분만 예정일 계산법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분만 예정일을 알아서 임신 7개월부터 출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조산에 대한 위험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예정일 계산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5.6%로 김<sup>4)</sup>의 55.1%보다 높았으며 연령분포별 분만예정일 계산법을 알고 있는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p > 0.1$ ).

<표 8-2>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분만예정일 계산법에 관한 지식유무를 보면 「알고 있다」가 고졸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 86.7%로 다음이었다. 교육정도별 분만예정일 계산법을 알고 있는 수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가 있었다( $p < 0.01$ ).

4) 김영자; 일부 농촌부인의 가정분만 실태조사, 대한간호 제13권 1호 1974. p.91

연령별 임신중의 진찰에 대한 지식 및 실천정도(교육별)

	임신 3개월의 진찰						임신 7개월의 진찰						임신 말기 때의 진찰						계						
	지		실		치		실		치		실		지		실		지			실		치			
	정	담	오	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	프	켓	다	정	담	오	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	프	켓	다		
15~19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20~24	1(50.0)	2(50.5)	3(75.0)	1(25.0)	1(100)	1(100)	1(100)	3(75.0)	1(25.0)	1(100)	1(100)	1(100)	4(100)	4(100)	1(100)	1(100)	4(100)	4(100)	4(100)	1(100)	1(100)	1(100)	1(100)	1(100)	
25~29	15(48.4)	16(51.6)	9(29.1)	12(38.7)	10(32.2)	8(25.8)	23(74.2)	2(6.4)	16(51.6)	13(41.9)	2(6.4)	29(93.6)	2(6.4)	29(93.6)	1(3.2)	25(80.0)	5(16.1)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0~34	16(51.6)	15(48.4)	10(32.2)	11(35.5)	10(32.2)	29(93.5)	21(67.8)	2(6.4)	23(74.2)	6(19.3)	2(6.4)	29(93.6)	2(6.4)	29(93.6)	2(6.4)	24(77.4)	5(16.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5~39	4(33.3)	8(16.7)	3(25.0)	3(25.0)	6(50.0)	12(100)	12(100)	7(58.3)	5(41.6)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8(66.7)	4(33.3)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12(100)
40~44	1(5.6)	17(94.4)	2(11.1)	8(44.4)	8(44.4)	18(100)	18(100)	10(56.6)	8(44.4)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1(61.1)	7(38.8)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45~49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1(50.0)	1(5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계	38(38.4)	51(61.6)	24(24.2)	38(38.4)	37(37.4)	18(18.2)	81(81.8)	5(5.0)	59(59.6)	15(35.4)	4(4.0)	95(96.0)	3(3.0)	95(96.0)	3(3.0)	73(73.7)	23(23.3)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Mean	34.43	31.58	31.73	34.16	20.77	32.63	31.0	32.42	32.45	29.5	32.6	30.3	32.0	32.0	34.8	34.8	34.8	34.8	34.8	34.8	34.8	34.8	34.8	34.8	34.8
±S.D.	±5.9	±9.8	±4.9	±5.1	±6.9	±8.2	±8.1	±8.2	±4.1	±4.4	±9.3	±3.7	±9.3	±3.7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임신중의 진찰에 대한 지식 및 실천정도(교육별)

	임신 3개월의 진찰						임신 7개월의 진찰						임신 말기 때의 진찰						계					
	지		실		치		실		치		실		지		실		지			실		치		
	정	담	오	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	프	켓	다	정	담	오	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	프	켓	다	
부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학	16(100)	16(100)	6(37.5)	10(62.5)	1(7.3)	15(92.7)	1(7.3)	15(92.7)	2(14.6)	14(80.4)	1(7.3)	15(92.7)	1(7.3)	15(92.7)	1(7.3)	15(92.7)	1(7.3)	15(92.7)	1(7.3)	15(92.7)	1(7.3)	15(92.7)	1(7.3)	15(92.7)
국	2(10.0)	18(90.0)	7(35.0)	13(65.0)	1(5.8)	19(95.0)	1(5.8)	19(95.0)	11(55.0)	9(45.0)	1(5.0)	19(95.0)	1(5.0)	19(95.0)	1(5.0)	13(65.0)	6(30.0)	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20(100)
중	5(29.4)	17(70.6)	1(5.9)	9(52.9)	7(41.2)	1(5.9)	16(94.1)	8(47.1)	9(52.8)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11(64.7)	6(35.3)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17(100)
고	19(61.3)	12(38.7)	16(51.6)	10(32.2)	5(16.2)	23(74.2)	8(25.8)	23(74.2)	5(16.2)	23(74.2)	3(9.6)	2(6.4)	29(93.6)	2(6.4)	27(57.1)	2(6.5)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31(100)
대	12(80.0)	3(20.0)	7(46.6)	6(40.4)	2(6.4)	7(46.6)	7(46.6)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3(86.7)	2(13.3)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계	38(38.4)	43(43.5)	24(24.2)	38(38.4)	18(18.2)	80(80.8)	5(5.0)	59(59.6)	35(35.4)	4(4.0)	95(96.0)	3(3.0)	95(96.0)	3(3.0)	73(73.7)	23(23.3)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99(100)

〈표 8-2〉 교육별 분만예정일 계산법

교육별	문제 No(%)	알고있다	모른다	계
		No(%)	No(%)	No(%)
무학		3(18.8)	13(81.2)	16(100.0)
국졸		14(7.0)	6(3.0)	20(“)
중졸		8(47.0)	9(5.3)	17(“)
고졸		28(90.3)	3(9.7)	31(“)
대졸		12(86.7)	3(13.3)	15(“)
계		65(65.6)	33(33.4)	99(100.0)

5. 임신중의 위험한 증상

임신중 위험증상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임신 합병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건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9-1〉에서 임신중 위험한 증상에 대한 지식을 보면, 하혈이 94.9%로 수위였고, 복통이

90.9%, 부종 87.8%, 배뇨장애(dysuria) 78.7%, 경련 75.7%, 그리고 두통이 61.6%의 순위였다.

특히 45~49세군단은 두통을 위험한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에 따른 임신중 위험한 증상 즉 부종, 두통, 하혈, 복통, 배뇨장애, 경련에 대해서 80%이상이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중 국졸이 임신중 위험증상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임신중의 섭생

임신중의 섭생 즉 수면과 휴식, 피부청결 및 목욕, 영양, 성교, 유방손질, 치아, 제증, 투약 중 약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가 82.8%, 영양섭취가 80.8%로 가장 높았고 그 이외는 일반적으로 임신중 섭생에 대한 지식이 낮은

〈표 9-1〉 연령별 임신중 위험증상에 대한 지식

연령별	문제 No(%)	부종	두통	하혈	복통	배뇨장애	경련
		No(%)	No(%)	No(%)	No(%)	No(%)	No(%)
15~19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20~24		3(75.0)	2(50.0)	4(100.0)	4(100.0)	3(75.0)	3(75.0)
25~29		30(96.7)	20(64.5)	30(96.7)	28(90.3)	25(80.6)	24(77.4)
30~34		23(74.1)	20(64.5)	27(87.9)	26(83.9)	28(90.3)	22(70.9)
35~39		12(100.0)	8(66.9)	12(100.0)	12(100.0)	8(66.7)	12(100.0)
40~44		16(80.8)	10(66.7)	18(100.0)	17(94.4)	12(66.7)	11(61.9)
45~49		2(100.0)	—	2(100.0)	2(100.0)	1(50.0)	2(100.0)
계		87(87.8)	61(61.6)	94(94.9)	90(90.9)	78(78.7)	75(75.7)
Mean±S.D.		31.48±3.5	32.08±3.6	31.63±3.8	32.72±3.8	32.06±3.2	32.47±3.7

Note: 한사람이 둘이상 응답했음

〈표 9-2〉 교육별 임신중 위험증상에 대한 지식

교육별	문제 No(%)	부종	두통	하혈	복통	비뇨장애	경련
		No(%)	No(%)	No(%)	No(%)	No(%)	No(%)
무학		16(100.0)	15(83.7)	16(100.0)	16(100.0)	14(87.5)	15(93.7)
국졸		14(76.0)	11(55.0)	16(80.0)	16(80.0)	12(60.0)	11(55.0)
중졸		14(82.3)	8(66.7)	17(100.0)	17(100.0)	15(88.1)	11(64.1)
고졸		29(96.1)	16(51.6)	30(96.7)	26(83.9)	22(70.9)	24(79.4)
대졸		14(93.3)	11(73.3)	15(10.9)	15(100.0)	15(100.0)	14(93.3)
계		87(87.8)	61(61.6)	94(94.9)	90(90.9)	78(78.7)	75(75.7)

Note: 한사람이 둘이상 응답했음

<표 10-1>

임신중의 섬생에 대한 지식과 실천(연령별)

연령별	문제												계		
	수면과 휴식		피부청결		영양		성교		유방손질		치아			체중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15~19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20~24	4 (100)	4 (100)	4 (100)	4 (100)	4 (100)	3 (75.0)	3 (75.0)	2 (50)	2 (50)	3 (75.0)	3 (75.0)	3 (75.0)	3 (75.0)	3 (75.0)	
25~26	13 (41.9)	12 (38.7)	15 (48.4)	17 (54.8)	12 (38.7)	15 (48.4)	15 (48.4)	12 (38.7)	8 (25.8)	13 (41.9)	13 (41.9)	14 (45.1)	18 (58.4)	15 (48.4)	
30~34	21 (67.8)	20 (64.5)	26 (83.9)	29 (93.5)	19 (60.7)	26 (83.9)	24 (77.4)	22 (70.9)	22 (70.9)	15 (48.4)	15 (48.4)	20 (64.5)	11 (35.4)	30 (97.0)	
35~39	9 (75.0)	9 (75.0)	8 (66.7)	11 (91.7)	11 (91.7)	8 (66.7)	9 (75.0)	5 (41.7)	5 (41.7)	8 (66.7)	5 (41.7)	9 (75.0)	5 (41.7)	8 (66.7)	
40~44	13 (72.7)	13 (72.7)	12 (66.7)	16 (88.8)	9 (50.0)	12 (66.7)	8 (44.4)	7 (38.8)	7 (38.8)	12 (66.7)	8 (44.4)	8 (44.4)	3 (16.7)	14 (77.7)	
45~49	2 (100)	2 (100)	1 (50.0)	2 (100)	1 (50.0)	2 (100)	1 (50.0)	1 (50.0)	1 (50.0)	2 (100)	1 (50.0)	2 (100)	1 (50.0)	2 (100)	
계	63 (63.6)	61 (61.6)	67 (80.8)	80 (97.5)	57 (57.5)	67 (80.8)	61 (61.6)	52 (52.5)	30 (30.3)	48 (48.8)	25 (25.2)	56 (56.5)	32 (32.3)	73 (73.7)	
mean	33.40	34.23	32.82	32.79	32.82	32.49	34.07	31.54	32.3	36.4	32.53	31.53	33.46	38.08	
S.D	±6.5	±3.3	±9.4	±8.5	±8.7	±8.7	±8.78	±9.5	±8.3	±3.4	±7.6	±8.9	±8.6	±6.8	

<표 10-2>

임신중의 섬생에 대한 지식과 실천(교육별)

학력별	문제												계		
	수면과 휴식		피부청결		영양		성교		유방손질		치아			체중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지식 No(%)	실천 No(%)
부	9 (56.2)	6 (38.0)	8 (50.0)	10 (62.5)	7 (43.7)	8 (50.0)	8 (50.0)	6 (37.5)	6 (37.5)	8 (50.0)	5 (31.2)	8 (50.0)	6 (37.5)	10 (62.5)	
국	8 (40.0)	10 (50.0)	8 (40.0)	13 (65.0)	8 (40.0)	8 (40.0)	8 (40.0)	6 (30.0)	6 (30.0)	10 (50.0)	4 (20.0)	10 (50.0)	10 (50.0)	13 (65.0)	
중	10 (58.8)	10 (58.8)	15 (88.1)	13 (76.4)	10 (58.8)	15 (88.1)	11 (64.7)	6 (35.3)	5 (29.4)	12 (70.6)	5 (29.4)	11 (64.7)	5 (29.4)	13 (76.4)	
고	22 (70.9)	22 (70.9)	22 (70.9)	29 (93.5)	20 (66.6)	22 (70.9)	22 (70.9)	21 (67.7)	6 (19.3)	14 (45.1)	6 (19.3)	21 (67.7)	14 (45.1)	23 (74.2)	
대	14 (93.3)	12 (80.0)	14 (93.3)	15 (100)	12 (80.0)	14 (93.3)	12 (80.0)	13 (86.7)	7 (46.7)	9 (60.0)	5 (33.3)	13 (86.7)	7 (46.7)	15 (100)	
계	63 (63.6)	61 (61.6)	67 (80.8)	80 (97.5)	57 (57.5)	67 (80.8)	61 (61.6)	52 (52.5)	30 (30.3)	48 (48.4)	25 (25.2)	56 (56.5)	32 (32.3)	73 (73.7)	



것으로 나타났다(67.6%~48.4%).

특히 실천에서 처아관리 25.2%와 체중관리 32.2% 그리고 유방손질 30.3%에 대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보다 철저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임신중 섭생에 가장 주의를 했던 계층은 대졸이였으며 무학에서는 투약을 제외한 전반적인 면에서 50%이하의 지식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7. 임신중에 입덧

<표 1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중의 입덧은 「일어나기전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한

다」고 옳은 대답을 한 수는 총 99명중 39명으로 39.4%이였으며 연령별로는 25~34세군에서 33명으로 64%가 옳게 알고 있으며 처리방안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수는 60.6%의 높을 을 보였고 실제로 옳게 실천한 경우는 11.1%에 불과했으며 연령분도별 지식과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p < 0.05$ ).

교육정도와 비교해 보면 학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임신보조에 대해서 상식적인 간단한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참는다고 하였다.

특히 대졸의 경우 73.3%가 옳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실천에 있어선 6.8%의 낮은 율을 보여 주었고 교육별 임신중의 입덧에 관한 지식과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 $p > 0.1$ ).

<표 11-1> 연령별 임신중의 입덧에 관한 지식 및 실천

문제 No(%) 연령별	지식		실천			계 No(%)
	정답	오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름	
	No(%)	No(%)	No(%)	No(%)	No(%)	
15~19	—	1(100.0)	—	1(100.0)	—	1(100.0)
20~24	2(50.0)	2(50.0)	2(50.0)	2(50.0)	—	4(100.0)
25~29	13(43.3)	18(56.7)	5(16.1)	24(77.4)	2(6.5)	31(100.0)
30~34	12(38.7)	19(61.3)	1(3.2)	29(93.5)	1(3.2)	31(100.0)
35~39	4(33.3)	8(66.7)	1(8.3)	11(91.7)	—	12(100.0)
40~44	7(38.9)	11(61.1)	1(5.6)	15(83.3)	2(11.1)	18(100.0)
45~49	1(50.0)	1(50.0)	1(50.0)	1(50.0)	—	2(100.0)
계	39(39.4)	60(60.6)	11(11.1)	83(83.8)	5(5.1)	99(100.0)
Mean±S.D.	32.51±4.8	32.0±4.9	32.0±4.9	32.61±3.5	34.0±3.8	

<표 11-2> 교육별 임신중의 입덧에 관한 지식 및 실천

문제 No(%) 교육정도	지식		실천			계 No(%)
	정답	오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모름	
	No(%)	No(%)	No(%)	No(%)	No(%)	
무학	8(50.0)	8(50.0)	2(12.5)	12(75.0)	2(12.5)	16(100.0)
국졸	4(20.0)	16(80.0)	2(10.0)	17(85.0)	1(5.0)	20(100.0)
중졸	3(17.6)	14(82.4)	3(17.6)	14(82.4)	—	17(100.0)
고졸	13(42.0)	18(58.0)	3(9.7)	27(87.0)	1(3.3)	31(100.0)
대졸	11(73.3)	4(26.7)	1(6.8)	13(86.6)	1(6.7)	15(100.0)
계	39(39.4)	60(60.6)	11(11.1)	83(83.8)	5(5.1)	99(100.0)

〈표 12-1〉

분만 장소(년령별)

문제 No(%) 년령별	지식·실천						계
	지		식		실		
	병원	가정	기타	예	아니오	무응답 모르겠다	
No(%)	No(%)	No(%)	No(%)	No(%)	No(%)	No(%)	
15~19	1(100.0)	—	—	—	1(100.0)	—	1(100.0)
20~24	4(100.0)	—	—	2(50.0)	2(50.0)	—	4(100.0)
25~29	28(90.3)	3(9.7)	—	18(58.0)	13(42.0)	—	31(100.0)
30~34	27(87.1)	4(12.9)	—	19(61.3)	12(38.7)	—	31(100.0)
35~39	10(83.4)	1(8.3)	1(8.3)	5(14.7)	7(58.3)	3(16.7)	12(100.0)
40~44	14(77.8)	3(16.7)	1(5.5)	3(16.7)	12(66.7)	—	18(100.0)
45~49	2(100.0)	—	—	—	2(100.0)	—	2(100.0)
계	86(86.8)	11(11.2)	2(2.0)	47(47.4)	49(49.5)	3(3.1)	99(100.0)
Mean±S.D.	32.29±3.6	34.0±4.8	36.5±7.3	28.2±5.5	36.61±7.3	42.0±5.1	

〈표 12-2〉

분만 장소(교육별)

문제 No(%) 학력별	지식·실천						계
	지		식		실		
	병원	가정	기타	예	아니오	무응답 모르겠다	
No(%)	No(%)	No(%)	No(%)	No(%)	No(%)	No(%)	
무학	12(75.0)	4(25.0)	—	—	15(93.7)	1(8.3)	16(100.0)
국졸	15(75.0)	4(20.0)	1(5.0)	3(15.0)	16(80.0)	1(5.0)	20(100.0)
중졸	14(81.8)	3(18.2)	—	4(23.5)	12(70.6)	1(5.9)	17(100.0)
고졸	30(66.7)	—	1(3.3)	26(83.9)	5(16.1)	—	31(100.0)
대졸	15(100.0)	—	—	14(93.3)	1(6.7)	—	15(100.0)
계	86(86.8)	11(11.2)	2(2.0)	47(47.4)	49(49.5)	3(3.1)	99(100.0)

8. 분만 장소

〈표 12-1〉에서 병원분만이 좋다고 대답한 수는 총 99명중 86명으로 86.8%였는데 실제로 병원분만 하였던 경우는 47명으로 47.4%였다. 이는 유<sup>5)</sup>의 48%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8.95±5.5세이었다. 한편 가정분만 했다고 대답한 수는 49.5%였으며 이는 유<sup>6)</sup>의 52%보다 낮았다. 연

령별분포는 40~49세군에서 가정분만 했던율이 66.7%로 가장 많았다.

교육별 분만장소를 보면, 가정분만했던 경우는 무학 93.7%, 국졸 80%, 중졸 70.6%, 고졸 16.1%, 그리고 대졸이 6.7%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분만 했음을 보여 주었고, 교육별 분만장소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p<0.05). <다음호 계속>

5) 유승동 외: 연세지역 아파트 주민의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예방의학회지 제 4권 제 1호 1971. p.86

6) 상계서 p.86